

3. 옛사람과 새사람

3.1 옛사람 :

아담의 타락한 형질인 육은 각 사람에게서 특징있게 개인적 인격을 형성하는데, 각 개인에게서 육이 인격화 한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타락한 인격으로 육(flesh : indwelling sin)의 지배를 받습니다. 각 개인의 사고 방식, Life-style, 습관(계으름, 우유부단, 성급함---)이며, 각 개인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육(flesh)은 각 사람 안에서 옛사람의 인격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옛사람을 노예로 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갑니다.

옛사람은 마치 알콜 중독과 drug 중독 등과 같이 죄에 중독된 영적 질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사인 예수님의 처방에 의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육에서 자유로와며, 새로운 인격인 구성하는데 이 것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옛사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떨어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 : 9-10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3.2 새사람 :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신 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인격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아 성령과 말씀에 완전히 굴복할 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4: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KJV)

4:23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NIV)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3.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과, 세가지 Level 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 자연인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한 자 중생인이며, 자연인은 육에 속한 자이며, 중생인에게는 어린 신자(육적 그리스도인) 장성한 신자(영적 그리스도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자의비유 _MS Power Point 에 있음)

3.1 육에 속한 자(Natural Man)

육에 속한 자는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입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육이며 죄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추앙하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이 범주 안에 들어 갑니다. (이 범주 안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방인을 모르고 살았던 순수한 이방인만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2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But the **natural man** receiveth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unto him: neither can he know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psuchikos, Greek 5591, Strong's

psuchikos,  *psoo-khee-kos'*; from Greek 5590 (psuche); *sensitive*, i.e. *animate* (in distinction on the one hand from Greek 4152 (pneumatikos), which is the higher or *renovated* nature; and on the other from Greek 5446 (phusikos), which is the lower or *bestial* nature) :- natural, sensual.

육에 속한 자가 행하는 일을 육의 일(Works)이라 하며(갈 5:19), 이것을 Dead Works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히 9:14).

히브리서 9 :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따라서 중생치 못한 인간이 행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선해 보일지라도 모두 죽은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갈 3:22). 그런 모든 행동은 원죄의 전가로 인한 원죄의 본질인 독립성과 무의탁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 :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나라

22 But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whole world is a prisoner of sin, so that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며, 십일조를 드리며, 육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도 죽은 자라고 하시며(요 5:21;25), 중생치 못하면 -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자의적 선행은 모두 독립성과 무의탁성에 기원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등등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로마서 강해에서 나온다)

3.2 육적 그리스도인(Carnal Christian)[5-03 Carnal, study of.docx](#)

육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였으나 아직 장성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 :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And I, brethren, could not speak unto you as unto spiritual, but as unto carnal, even as unto
babes in Christ.

고린도전서 3 : 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For ye are yet carnal: for whereas there is among you envying, and strife, and divisions, are ye
not carnal, and walk as men?

sarkikos, Greek 4559, Strong's

sarkikos, *sar-kee-kos'*; from Greek 4561 (sarx); *pertaining to flesh*, i.e. (by extension) *bodily, temporal*, or (by
implication) *animal, unregenerate* :- carnal, fleshly.

Carnal Christian 의 특징은 중생했지만 타락한 아담의 성품 즉 자연인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육적 성품과 영적 성품이 섞여져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은 데 교회 문을 나서면 불신자와 구별이 잘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
다음 주일 교회에 올 때까지 성경을 들쳐 보지도 않고 그대로 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하나되어 승리의
삶을 살다가도, 어떤 때는 깊은 나락에 떨어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려고 하는 진지한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함이 없이 옛성질, 기질들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삽니다. 완고한 고집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집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적 일(Dead works)과 영적 일(Good Works)을 동시에 생산하며 살아 갑니다.

육적 크리스찬의 특징은,

요한일서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무슨 일을 자랑하기 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체면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다.

3.3 장성한 신자(Mature Christian)

장성한 신자에 대해선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며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며 으쓱댁니다. 사실로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자신의 기쁨이나 자랑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는 아직도 육적 그리스도인의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지배하여,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신자의 특징은,

1.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2:20 내(옛사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옛사람)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인격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므로 예수님 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인격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2. 믿음으로 산다

이제 내(새사람)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자식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희락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의탁합니다.

3. 성령에 따라 살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일러 하지 않는다.

로마서 8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을 들여다 보면 장성한 신자보다는 어린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 아이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Old Infant Christian).)

IV. 영육의 분리를 경험한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

골로새서 3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 : 2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 :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 :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 :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 :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 :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로새서 3 :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 :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 :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3:3 에서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라고 하면서 5 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명령합니다.

‘이미 죽었다(3 절)’ 고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에서 한 단계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십자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십니다. 2000 년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옛사람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 증생한 사람과 죄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견우적녀처럼 절절히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청산되었습니다. 죽었으면 땅에 묻어야 합니다. 땅속에 매장하고 나면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사망하여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롬 6:6 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4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이 죽은 것 같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더욱 능력 있게 사로 잡아 와 옛사람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저는 어느 미망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루고 나서 얼마 동안은 자기 남편의 환영이 자기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다가 남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여보 식사했어요?” 하고 실제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인의 마음 속에 죽은 남편의 환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여, 남편이 죽지 않은 것입니까?

이 부인의 의식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 부인의 남편은 땅에 묻혔고, 사망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도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는 그런 법적 상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아래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의 사망을 끊임없이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끊임없이 벗어 버리면서 시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시인하고 외칠 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고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사람의 기질, 버릇, 습관으로부터 깨끗케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습관의 죽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 아이와 늙은 어린 아이가 우글우글 대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과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6 :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자이며 믿음의 승리자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성도라는 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 가야 합니다. 8 절에서는 누더기와 같은 이 옛 옷을 “벗어 버리라” 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사 입고 밖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 보았습니까?

우리는 장성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고린도전서 15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따라서 성도의 할 일은 쓰레기를 깨끗케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쓰레기 치우는 일은 각자의 임무이며, 사람마다 쓰레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몸에 수의를 두르고 나온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와 능력

요한복음 1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 :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됩니까? 요한 복음 1:12 에 보니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 순경이 아무리 작아도 그는 권세가 있어서 큰 트럭에게 저리로 가라면 그리로 갑니다. 이와 같이 권세는 능력보다 위에 있어서 권세를 가진 자는 사물을 지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는 데 이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명령한 것같이 인생 행로의 모든 풍랑을 향하여 우리도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시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연습하고 잡아 먹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연습합니까? 사자는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토끼를 잡아 먹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쥐를 잡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하시며 “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16:17-18)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안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V. 결단

히브리서 12 : 1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깨뜨리는 긴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예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땅에 속한 지체(골 3:5)를 날마다 쓰레기 통에 던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옛사람의 권능을 벗어 버리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는 자기 앞에 당한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1 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 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은 우리를 중압감으로 내리 누르고, 얽매는 것은 죄입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구원론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